

2011 NOV·DEC Vol.90 11·12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2
대장암

특별한 만남_ 대장암 전문의
외과 김경래 교수
소화기내과 김형길 교수

의학정보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진단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5색의 채소·과일 6가지 이상을 하루 3번 섭취!!



JCI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풀잎 스친 바람에도 행복하라

- 詩 / 이 재 -

정직하면 손해 보고
착하면 무시당하는 것이
세상인심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정직하라

뿌린다고 다 열매가 아니듯
열심히 산다고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닐 테니
이 또한 세상살이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감사하라

사랑은 혼해도 진실은 드물고
사람은 많아도 가슴이 없을 때
산다는 건 얼마나 고독한 일인가
그럼에도 사랑하라

살아온 날은 고단하고
살아갈 날은 아득해도
“사람아, 그럼에도 사람아”
풀잎 스친 바람에도 행복하라

2011. 11+12

CONTENTS

Nov. Dec Vol. 90

- 02 행복을 전하는 글 풀잎 스친 바람에도 행복하라
- 04 월례조회사 새 병원 증축의 시점, 발상의 전환 필요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2 대장암

- 06 특별한 만남 외과 김경래 교수
- 08 소화기내과 김형길 교수
- 10 의학정보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진단
- 13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대장암과 운동
- 14 전문클리닉 소개 어지럼증 클리닉
- 16 포커스 '새로운 도전 인하대병원 연구중심병원'
- 19 직무교육 후기 신규간호사 직무교육 - 소진방지 프로그램
- 22 해외교육 후기 스리랑카 현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녀와서
- 24 희망천사 릴레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길벗산악회
- 26 글이 머무는 풍경 작은 나눔 큰 행복
- 27 사회복지 기금 모음 이중고를 겪던 중 따뜻한 후원의 손길에 힘입어
- 28 노사체육대회 스트레스 한방에 훅~~ 조직력, 단합력으로 뚝뚝 뭉쳐
- 30 특특약물상담 만성소화불량 환자에게 신경안정제 처방 흔한 일
- 32 협력병원탐방 글로리병원
- 33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 38 알립니다 언론보도 / 친절직원 소개 / Global Inha /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 암 진료시간표



새 병원 증축의 시점, 발상의 전환 필요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한 해의 결실, 수확, 풍성한, 단풍 등과 함께
시원한 계절, 책 읽기 좋은 계절 이라고들 합니다.



하늘은 높고 청명한 가을, 지난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월미도 체육공원에서 우리 교직원 600여 명이 모여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노동조합 및 병원 관계부서 모든 교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그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종전에는 정치참여가 없던 젊은 세대들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그동안의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를 이와 같은 결과로 표출하였다고 생각되며, 트위터의 과급력에 대해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성세대들이 이들 세대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젊은이들의 정치참여와 그로 인한 선거결과는 좌파니 우파니 하는 식의, 사상적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는, 즉 불공정사회에 대한 반발, 희망 없어 보이는 미래에 대한 분노와 절규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공정한 기회의 재분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40대로 경제, 사회적으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되짚어 보고 평가하는 세대인 이들에게 명퇴에 대한 불안과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 그리고 중산층

에서 추락할 것 같은 위기감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기성정치는 이들 세대에게도 버림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며, 최근 미국 월가에서 번지고 있는 시위양상들을 볼 때, 세계적으로 번지는 변혁이고 혁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미 1930년대에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7가지 악'을 규정 하였습니다. 약 80여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에도 부합하는 현실적이며 바른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이 결여된 부,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째로 꼽은 것이 바로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이는 우리병원과 같은 조직에도 적용 될 수 있는데, 경영자는 원칙이 있는 경영,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를 하거나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그에 맞는 보상이 선행되어야 열정이 생겨나고 더불어 조직 발

전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간과해선 안될 것은 지나친 성과지상주의는 아이디어 도용과, 책임회피 풍토가 만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성과와 실패 그리고 아이디어와 책임을 공유하며 발전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원내에서 진행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정헌재 교수의 강의에서도 언급 되었듯,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연세대 철학과 김형철 교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쓴 소리를 들어라. 몸에 좋은 약은 맛이 쓰다." 라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며 미국의 최신 전투함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면담을 통해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시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조직분위기 쇄신에 성공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경영자에게 쓴 소리를 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 조직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병원에도 쓴 소리 하는 직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 특히 관리자들과의 곁에는 쓴 소리 하는 부하 직원들이 많아야 하는데 관리자 여러분들의 주변은 어떠한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쓴 소리를 하는, 자신보다 훌륭한 부하 직원이 몇 명만 있으면 그 조직은 성공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조직에서 존재감이 많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의 전문영역이 확실한 사람, 실적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칭찬과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대목에서 상당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아첨은 아부와 달리 실체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 소리라고 정의하며, 오늘날에는 실용주의와 함께 아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고, 현대인의 삶의 기술로써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교수는 장자의 '無用의 用', 즉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을 말하며 실패의 성공으로의 반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3M의 포스트잇, 물에 뜨는 아이보리비누 등이 그것입니다. 바로 사소함의 관심.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과 창의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 병원을 증축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허가 설계가 끝나면 본 설계가 시작되겠지만, 4-5년 후 병원이 완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또는 20년 후의 의료상황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U-헬스라는 단어도 최근에는 융합의료라는 단어로 바뀌어 가는 시대이며, 우리를 또한 비용절감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준 10년 동안 의료수가는 10% 인상되었고, 상대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38%, 임금은 무려 82%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원가 보전율에서도 급여행위 75%, 입원료 18-57% 밖에 안됩니다.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도 병원은 64.9이고, 의원은 66.6으로 2010년에 역전되었고, 수가 인상을 또한 2011년 병원은 0.97%, 의원은 2% 였으며, 내년도 또한 병원 1.3%, 의원은 2.8%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료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해결하고자 옥외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의료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협조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하대병원의 노사관계에서는 충분한 상호 협조 하에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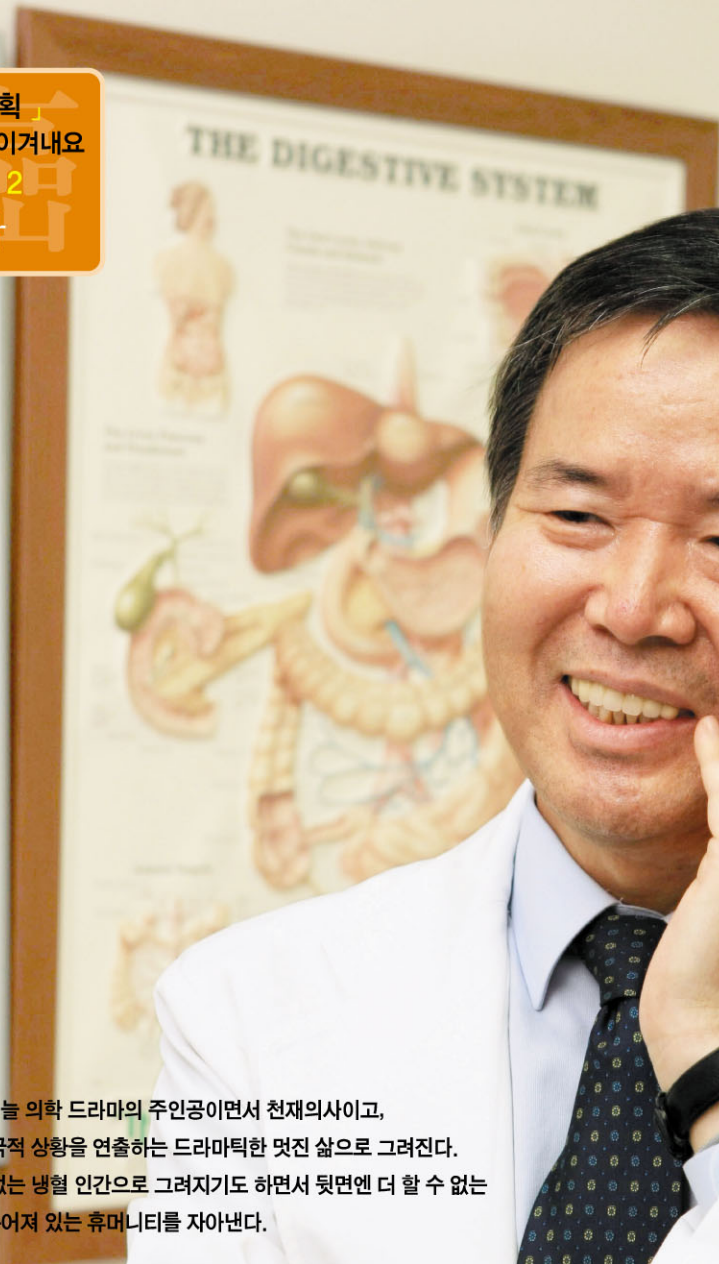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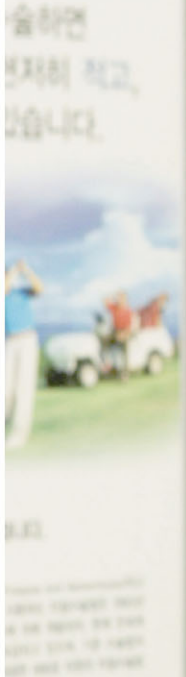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발상의 전환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 병원을 짓는 것, 여기에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후에 의료시장이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며, 결정된 후에는 확신과 함께 우리 모두의 하나된 응집력과 협동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

의료원장 박 승 립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2
대장암



“외과의사”는 늘 의학 드라마의 주인공이면서 천재의사이고, 치열하면서 극적 상황을 연출하는 드라마틱한 멋진 삶으로 그려진다. 때론 인간미 없는 냉혈 인간으로 그려지기도 하면서 뒷면엔 더 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감추어져 있는 휴머니티를 자아낸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
외과 김경래 교수

안 할 수 있으면 좋고, 수술은 마지막 선택!

Profile_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인하대병원 외과에 재직 중이며, 전문진료분야는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이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의사의 역할이나 모습이 많이 변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멋있지만은 않다. 하지만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벼랑의 끝에 선 그들에게 의사인 자신의 역할은 완벽한 해결사이자, 조연자이고 싶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대장암 증가 추세나, 원인 등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거 같습니다. 서구적 식생활, 육류, 공해, 스트레스 등등 다 알죠? 암이 진행되기 전에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수술 전문인 대장암 외과 김 교수는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PET 등 최첨단 기계장비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진료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기진단으로 대장암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최상의 선택인 셈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명의는 병이 나기 전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중요한 것은 치료 방법보다 조기 진단이라는 김 교수의 생각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문득 의사로서의 건강관리가 궁금했다.

“저요, 정말로 매일 변을 관찰하죠. 구체적으로? 허허, 참,,, 변기 물 내리기 전 한 번씩 색이랑 굵기, 모양을 봅니다. 늘 보다보면 척봐도 알죠. 늘 보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이상신호입니다.”

자신의 예방법을 이야기 하는 김 교수는 대장암 뿐 아니라 모든 건강관리의 최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장암에 육류를 먹으면 안 되냐고 묻는 환자가 있으면 야채와 함께 조금만 먹으라고 한다. 먹고 싶는데 못 먹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나쁘기 때문이다.

99.9%의 성공률, 그러나 0.01%가 더 두려운 외과 의사

수술이라는 게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외과 의사의 최대 목표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성공률이 99.9%라 하더라도 지금 하는 수술에 실수가 그 0.01%에 해당될까 조심 또 조심하며 최대 방어능력 자세로 수술실에 들어서야 한다고 김 교수는 단호히 말한다. 그 순간만큼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집중하고 몰입하고 스텝에게 엄격해진다. 실수는 죽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수술실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잊는다. 나머지 부족한, 인간의 영역을 떠나는 2%는 신에게 맡길 수밖에.....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치료 접근방법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유행에 민감한 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조건 로봇 수술이 표준화된 수술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대장암의 경우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로봇 수술의 장점을 찾기는 힘들다고 김 교수는 아쉬움을 전한다.

그리고 외과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팔방미인 텔런트(?) 기질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체력, 손재주, 머리(센스, 눈치 등)” 이라고 한다. 언제 응급이 생길지 모르고,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수술 상황에 체

력은 기본이고, 일일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눈짓 하나로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센스까지 있으면 좋다.

정작 김 교수에게 의사란 마음만 먹으면 돈도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데서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환자 맞춤형, 통합진료로 병원이 움직여지는 미래형

암은 특히 변이가 많아 예상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자 한 명을 두고 위험 요소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진료과 의사들이 함께 고민하는 통합진료 시스템을 갖춘 환자 맞춤형 치료를 김 교수는 조심스레 제안한다. 환자를 위해 병원이 움직여지는 미래형 치료시스템으로 인천지역의 암 환자를 위한 치료 능력과 함께 원활한 소통으로 암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김 교수의 오롯한 바람이, 달려가는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내시경 이용한 시술의 한계를 확장, 새로운 도전을 넘보는 소화기내과 김형길 교수

환자는 나의 스승, 의사의 소명을 일깨워 준 인천



“일반인에게 의학적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환자 입장에서든 처음 보는 의사의 설명과 결정을 믿고 따르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제 자신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 관계가 이혜타산의 관계일 수밖에 없고, 의학적으로 의사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종종 환자에게 성심을 다했지만 절망으로 돌아온다 해도 높은 차원에서 쌍방 간에 측은지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가 인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던 20여 년 전의 일로 회상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세브란스 의료원장이셨던 강진경 교수의 전화 한 통화로 종합 수련병원인 인천기독병원으로 오게 되면서부터이다. 그 당시 내과 분야의 수준은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인천의 중환자가 서울로 후송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던 때이다. 중환자가 넘치고 많은 환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하곤 하였던 시절이었다.

당시 호흡기 분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폐질환만을 볼 수는 없었고 소화기, 심장, 혈액, 내분비 환자 등 모든 중환자들은 다 볼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화기 출혈로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고 내시경 기술이 지금과 같지 않아 외과적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때다.

이때부터 김 교수의 내시경 독학은 시작된다. 하지만 독학에 한계를 느끼고 7년 후 모교 소화기내과에 연구강사로 자원하여 박봉의 연구강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높은 연봉의 수련 병원 내과 과장과 비교하면 하루 수십만 원의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백의종군’의 신분을 되뇌면서 짧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 공부하였고 1998년부터 인하대병원과 인연이 되어 인천으로 돌아온 것을 김 교수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수많은 중환자의 경험은 목적의식도 사명감도 없던 시절, 인격의 성장은 물론 의사로서 깊은 철학과 본분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꼽는다.

“제가 돌봐드렸던 그 환자분들은 의사로서나 인간으로서 제 스승이었고 그 7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격정적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경험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르침을 준 인천 환자분에게 늘 빛을 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김 교수, 자신에게 의사는 직업이 허락된 것은 인천의 수많은 중환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성과라 생각한다. 그래서 또 그것을 보답하는 길이 소명이라고 말한다.



의사로서 친절하다는 것은 서비스적인 친절과 다르다고 김형길 교수는 생각한다. 많은 환자에게 실수 없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 다소 사무적이고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늘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의사가 진정으로 베풀어야 하는 '친절' 이라는 것이다.

Profile_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에 재직 중이며, 전문진료분야는 위암, 대장암과 소화기질환, 대장질환이며 외과적 치료내시경이 관심분야이다.

대장암의 급증,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적 절제술 느는 추세

대장직장암(최근에는 결장직장암으로 통용됨)분야에서 소화기내과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대장암을 진단, 각종 정밀검사로 대장직장암의 병기를 결정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한 후 외과적 절제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의뢰하거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며 수술 후 환자의 전신적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정기적 검진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 전암성 병변인 폴립을 진단하고 내시경 적 절제나 조기 대장직장암의 경우 외과적 장절제술 대신 내시경 적 점막 하 절제술로 병소를 완전 절제 하기도 한다. 조기 위장관 암의 내시경 적 절제술은 위암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조기 대장암의 급증으로 내시경 적 절제술의 예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의 한계를 확장하여 외과적 치료분야를 넘보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놓지 않는 김 교수는, 신 기술을 연구하고 치료를 성공적으로 하기도 하고 불치의 병은 끝까지 환자와 동행해 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또 의사는 환자가 현대 의학에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의학의 한계는 있다. 김 교수는 이 한계에 왔다고 판단되면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이 없음을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이해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친지나 친구처럼 위로하고 동행하는 태도로 대하려고 한다. 이것이 김 교수가 의술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을 채워가는 방법이다.

“인하대병원 은 서울의 빅5병원의 진료 수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는 것은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소비적인 일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은 우리 손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밤늦도록 내시경실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치료내시경 분야에서 국내 선두임을 김 교수는 자신하며 끝으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전한다.

“배우나 가수는 무대에서 죽고, 군인은 전장에서, 우리는 병동과 수술실에 싸우다 죽어야지요.”

뜻밖에 사투 전문이 감도는 각오에 소름이 돋는다.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많아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김 교수의 '바쁨' 은 분명했다.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2
대장암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진단 위험 요소 없어도 50세가 되면 5년에 한 번은 검진

대장암은 거의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있어 검사를 시행하면 대부분 진행성 대장암으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대장암의 전단계인 선종을 제거하거나 대장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글 · 유성수 전임의 | 소화기내과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5색의 채소·과일 6가지 이상을 하루 3번 맞춰 드세요!!

대장암의 예방은 왜 중요하나요?

대장암은 서구에서 가장 흔한 악성 종양으로서 50세의 사람이 80세까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5%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장암은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서구에는 오래 전부터 대장암을 예방하거나 또는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의 서구화 등에 기인하여 대장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07 한국의 사회 지표”를 살펴보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8명으로 제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의 예방을 통하여 대장암의 사망률을 낮추는 노력이 국민 보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암에 걸리기 쉬운가요?

5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대장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특히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장의 선종,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등을 앓았던 사람
- 가족 중에 대장암이나 대장 선종 환자가 있는 사람
- 가족 중에 대장용종증 환자가 있는 사람
- 지방 섭취가 많고 섬유질 섭취가 적은 사람
- 비만하고 운동량이 적은 사람

대장암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1차적 예방과 대장암 또는 대장암의 전구 병변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2차적 예방이 있습니다. 우

Colorectal Cancer

리들은 일상 생활에서 여러가지 습관을 바꿈으로써 1차적 예방을 달성할 수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2차적인 예방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질의 섭취를 줄입니다.
- 과일, 채소 등과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 비만이 있는 환자의 경우 체중 조절을 합니다.
-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 과음을 피합니다.
- 금연을 합니다.

대장암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정기 검진이 왜 중요하나요?

대장암 즉 대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은 거의 대부분 대장의 양성 종양인 선종이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악성으로 변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대장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많이 발전되어 암을 예방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을 통하여 대장의 양성 종양이나 조기 대장암을 미리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대장암이나 대장암의 전구 병변인 선종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대변잠혈반응검사와 직장경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대변잠혈반응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양의 출혈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눈으로는 대변으로 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대변잠혈반응검사를 하면 출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나 그 전구 병변이 있으면 많지는 않지만 출혈이 있어 대변잠혈반응검사에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변잠혈반응검사가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경 검사는 내시경을 통하여 대장암이나 용종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직장과 S자결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검사하실 수 있으며 0.5cm 이하의 작은 용종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장암이 직장내시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직장이나 S자결장에서는 줄어 들고 그보다 깊은 대장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장내시경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전체 대장내시경을 권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드물게 천공(구멍이 뚫림)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대장암의 예방 효과에 비하면 매우 효과적인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 많이 아프다던데?

모든 사람이다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을 시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검사 전에 설사약을 마시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정기검진을 해야 하나요?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해야 대장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미국에선 특별히 대장암의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변잠혈반응검사는 50세 이상에서 매년 한 번씩, 직장내시경은 3~5년에 한번씩, 대장내시경은 10년에 한 번씩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더 젊은 나이로부터 더 자주 검사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미국과는 다르고 검사 수가가 미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는 사람이라도 50세가 되면 5년에 한 번은 대장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Q1. 이미 장이 막혀있는 대장암도 한 번에 수술이 가능할까요?

대장암에 의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대장 청소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한 번에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수술 전에 대장을 세척하고 수술하는 방법과 우선 인공항문을 만들어 대변을 씻어낸 후에 2차적으로 근치적 절제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텐트 삽입을 통해서 수술 전에 대장의 청소가 가능하여 한 번에 수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Q2. 인공항문이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대변의 배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통해 대변을 체외로 배설하기 위해 복벽에 만든 구멍입니다. 일시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영구적으로 대변을 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이런 인공항문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복지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대장, 직장암 수술을 받으면 반드시 인공항문을 차야 하나요?

대장,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대장, 직장암 수술 자체보다 항문을 없애고 인공항문을 차야 한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의학의 발달에 따라 항문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대장, 직장암수술을 받는 환자의 약 5%만이 배로 인공항문을 내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Q4. 직장암의 수술은 대장암과 다른가요?

직장주변에는 방광 및 성기로 가는 신경이 있으므로 암

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이런 신경을 잘 보존해 배뇨기능과 성기능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기 직장암의 경우는 항문을 통해서 기계를 삽입하여 종양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경향문 미세수술(TEM)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직장 및 항문을 완전히 절제하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복회음절제술이 있습니다.

Q5. 수술을 받은 후의 합병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술 직후에 상처의 통증 때문에 숨을 얇게 쉬고 가래를 뱉지 못하면 폐렴 등의 폐 합병증이 오기 쉽습니다. 또 한 수술 후 장이 유착되어 장폐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후에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수술 상처의 감염, 출혈, 요저류와 요실금증,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대변을 자주보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등 배변 기능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후 1년까지는 서서히 호전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되지만, 항문에 가까이 있는 직장암을 도려낸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Q6. 재발해도 다시 한 번 수술이 가능합니까?

가슴 엑스레이 촬영, 초음파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대장내시경 등의 모든 검사에서 다른 곳에 전이가 없으면 다시 한 번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래를 통해 추적 관찰을 하다 재발된 환자의 약 20%에서는 다시 한 번 완치 수술이 가능합니다.

Q7. 간으로 전이가 되어도 수술이 가능합니까?

다른 암에서는 간에 전이되어 있으면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장직장암의 경우에는 간에 전이되어 있을 경우에도, 외과적으로 근치적 절제를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근치적 절제를 하면 25~30%의 5년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절제하지 않은 경우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고주파를 이용한 간전이암의 치료를 많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간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치료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장암 발병률을 보면 국내 남성이 세계 4위,
 여성이 19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시아 전체에서는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기록하였다.

대장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환자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지만 요즘은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장암의 발병 원인으로는 문명의 발달로 인한 좌식생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고지방 고단백질의 식사, 섬유소 섭취 부족, 비만 등이 있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더불어 스트레스, 음주, 흡연도 대장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소에 해당한다.

대장암 환자를 위한 운동의 종류나 양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로 걷기, 조깅, 자전거, 등산, 에어로빅, 수영, 배드민턴 등 유산소운동을 권하며 환자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능한 주 5회 30~40분 이상 또는 주 3회 6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환자의 경우에는 근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1.5대 1의 비율로 복합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떨어진 근력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복부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운동(역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홀라후프)과 복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은 피하고, 중량과 횟수를 가볍게 하여 여러 번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복 수술을 한 입원환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병동 주위를 가볍게 산책하여 체력을 끌어올리는 수준인 낮은 강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실외에서 하는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맨손체조 정도의 운동이 좋으며 필요시 의사나 운동처방사의 상담을 받고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권한다.

운동은 누구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 운동과 거리가 멀던 사람들도 오늘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보자. 대장암을 포함 각종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고 '암 정복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환자가 아닌 훌륭한 정보전달자가 되는 모습을 그려본다. 필자 또한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 '건강의 아름다움'을 찾게 해주는 조력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대장암과 운동 수술 후에는 복부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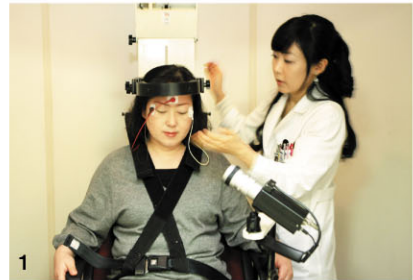
글 · 안주환 운동처방사 | 당뇨비만센터



어지럼증 클리닉

인하대병원 어지럼증 클리닉은 1999년 개소한 이후 10년 넘게 어지럼증 환자와 소통 하면서, 또한 어지럼증의 의학적 발전과 역사를 같이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평형의학회 이사로 역임 중인 김규성 교수의 진료를 중심으로 첨단장비를 고루 갖춘 전정기능 검사실, 청력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지럼증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와의 협진진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지럼증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논문을 발표 하고, 매해 전국규모의 어지럼증 학회인 Vestibular Workshop 을 주최하여 전국 각 병원들의 누적된 연구성과 및 어지럼증에 대한 이해를 널리 보급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2



3

Dizziness Clinic



4



5

1. 회전운동검사
2. 뱀프검사
3. 동적자세검사
4. 영상안구검사
5. 어지러움증 클리닉 의료진



김규성 교수 | 이비인후과 어지럼증 클리닉

• 전문분야 : 어지럼증

• 진료시간 : 초진(수요일 오후), 재진(월 오전) 수 (오후), 금 (오후)]

• 문의 : 이비인후과 ☎032-890-2420, 2421

어지럼증(dizziness)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증상입니다. 어지럼증은 건강한 사람도 한 번씩 생기는 흔한 증상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어지럼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도 함께 겪게 합니다. 조금만 걷거나 움직일 때 힘들고,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향후 활동과 삶에 대한 불안 등을 느끼게 됩니다. 즉 '건강하게 잘 살기' 라는 삶의 질에 장벽이 되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클리닉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어지럼병이란 '증상' 을 중심으로 쓰는 표현으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병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쉽게 치료되는 어지럼도 있고, 점차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어지럼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으로는 우리의 신체에 어느 한 부분만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귀는 물론 뇌의 이상이나 눈의 이상, 그 외에 다른 심혈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야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지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진과 환자의 눈높이를 맞추어 오랜 시간 환자의 어지럼증상에 대하여 듣고, 보고,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인하대병원 어지럼증 클리닉에서는 환자분들이 좀더 편안한 장소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상담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규성 교수님의 진료 후,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한 검사를 통해 어지럼의 원인과 병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석증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 이석증의 경우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 내부에서 떨어져 나온 돌가루(이석)가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합니다. 머리를 움직일 때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5분 이내에 가라앉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반고리관에 들어가 있는 이석을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물리치료(위치교정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메니에르병 메니에르병은 반복적인 어지럼증, 난청, 이명, 귀먹음

함이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과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는 증상이 동반되며, 몇 십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발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이의 내림프액이 과도하게 늘어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내림프액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염분의 섭취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권장되며 어지럼증 및 난청 정도에 따라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담치료를 통해 경과 관찰만으로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이노제와 혈액순환제 등의 약물치료도 시행하며,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엔 항생제를 고실(고막 안쪽 부위)에 주입함으로써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정신경염 갑작스럽게 한쪽 귀의 전정기관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의 기능이 일부 또는 완전히 떨어지는 병입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가 동반되어 안정과 어지럼증의 원인감별을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추성 어지럼증 중추성 어지럼증에는 뇌혈관 질환, 고혈압과 저혈압, 뇌종양, 동맥경화증 등이 해당됩니다. 질환 부위에 따라서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의식의 혼미 또는 소실은 강력한 뇌혈관 질환을 암시하는 징후가 되며, 이 경우는 응급으로 뇌 CT, MRI,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확진 하고, 이에 따른 혈전용해제 및 혈액응고 방지제의 사용 또는 혈중 제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시간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어지럼증 클리닉에서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료협력체계가 되어있어서 질환의 확진 후에는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와의 담당교수님께 진료를 의뢰하여 드립니다.

인하대병원 어지럼증 클리닉은

어지럼병에 있어서 의료진은 치료를 주고 환자는 치료를 받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지럽지 않고 건강하게 걷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소통하며 보듬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첨단장비와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학적 발전에 발맞추어 어지럼증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연구중심병원유치추진위원회 '새로운 도전 인하대병원 연구중심병원'

연구중심병원유치추진위원장 손병관 교수



Q. 최근 연구중심병원유치추진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구중심병원 개념과 신설 취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세계 각국은 보건의료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Post-IT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HT) 산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산업은 환자진료 과정에서 얻어지고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병원 중심의 HT R&D 시스템의 고도화

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첨단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통하여 질병극복을 위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최신 의료기술의 개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World BEST Research-driven Hospital) 육성을 목적으로 연구중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하대병원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보

건의료기술산업에 동참하는 연구중심병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추진력을 갖추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Q. 연구중심병원유치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요?

연구중심병원으로 가기 위한 틀(container)을 만들고,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병원의 연구 분야를 선정하고 또 몇 개 분야를 합쳐서 전문성 있는 연구 유닛(unit, contents)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틀을 만들어 정부가 원하는 조건에 합당해야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연구 분야의 조직체계 구축과 회계 독립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연구 유닛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수들이 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이를 원천기술 확보, 융합의 가능성, 연구 인프라, 연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 후 다른 연구 유닛과 통합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최고의 연구 유닛을 결정할 것입니다. 연구중심병원의 기본 개념이 사업화, 나아가 정부의 창출이기 때문에 공대, 자연대는 물론 인천 지역사회, 필요한 경우 국내 타 지역이나 외국의 연구소와도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도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치 위원회의 세 개의 팀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Q. 우리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병원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국가 R&D 과제 수주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하대병원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병원 유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중심병원이 지향하는 연구 결과는 의료산업화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그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의 선순환을 통해 병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자연히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되어 진료 분야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병원은 이런 시스템이고 다른 모든 나라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중심 병원은 단순히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 지역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맡게 된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인하대병원의 경쟁력을 향상 시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구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러면 우리병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요?

우리병원은 지역임상시험센터, 유타인하 DDS 연구소, 소화기질환 의료제품 유효성평가센터, 성의학 병원 특성화연구센터, 줄기세포 선도연구센터, 알레르기질환 환경보건센터,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 등 국가 R&D 과제를 수주하였으며, 연구 전담교수제도, 일반 동물실험실, SPF 동물실험실, GMP 시설 등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여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송도 바이오 관련 업체, 벤처기업, 제약회사, 외부기관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우리 병원 만큼 경쟁력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Q. 연구중심병원은 기존의 병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일반 병원이 진료 중심이라면 연구중심병원은 진료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 신(新)의료기술 연구 및 사업화에 역량을 쏟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중심병원이라고 해서 외형상으로는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연구 부문이 활성화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위한 공간이 확대될 것이며 정부에서 제공되는 자금을 이용한 장비도입, 인력보완 등을 통한 가시적인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인프라를 통한 연구결과를 이용한 산업화가 가시화될 때는 기존의 병원과는 다른 병원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연구중심병원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은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집단이라고들 합니다. 각 병원이 확보하고 있는 최첨단 의료장비는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과잉투자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의사들의 환자진료에 대한 경험은 어느 나라 의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연구 쪽으로 틀어 주지만 하만 의료기술산업 분야가 불 불듯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이고 의료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 전환을 위한 정책적 유도방안이 연구중심병원 제도입니다. 즉 임상 의사가들 진료료 통해 갖게 되는 환자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연구하게 하여 산업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약품, 진단 방법 및 기기, 치료 기기, 신의료 기술, 소재, 용품 등 모든 범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장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던 것이 연구 분야의 활성화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병원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증환자 대형병원 이용 시 약제비 본인 부담을 인상이나 논의되고 있는 입원 포괄수가제 확대 등은 대학병원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의료 환경 변화는 병원 수입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연구중심병원의 정립과 수익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대학병원으로서 우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걸맞게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조직 문화를 다함께 만들어, 연구를 통한 인하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비전을 공유하여 진료뿐 아니라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가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OVERVIEW

연구중심병원 - 연구공간(정석A동)

- 8F 소화기질환의료제품
유효성평가센터(NCEEED)
- 5,6F 임상시험센터
- 3F 줄기세포연구센터
- 2F 임상의학연구소
성의학특성화연구센터
- 1F 임상시험센터
지역임상시험센터



의약품, 기기, 소재 용품의 산업화

연구중심병원의 R&D 및 치료기술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의약품, 기기, 소재, 용품이 상용화

MGH 상업화 사례

상품명 Enbrel	DuraSul	Alzheimer Alert	일산화질소
용도 관절염치료제	인공관절 특수폴리머	알츠하이머 진단	급성호흡 곤란증 치료제
상업사 Amgen	Zimmer	Nymox	Linde AG

연구를 통한 병원의 혁신 브랜드화

하버드MGH는 다양한 신치료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병원의 명성을 구축

년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주요 치료 기술
1846	미취수술법개발(MGH가 유명해진 사건)
1886	총수염 수술법 개발
1896	X-ray 진단법 실시
1961	양성자치료를 환자치료에 사용
1979	MRI 진단법 실시
2000이후	심근경색(레이저심장천공),중이염(인공달팽이관이식)

혁신적 기술을 통한 세계시장 석권



- 캐나다 AHSC 중 하나인 Calgary대학은 3D MRI 수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상업화하기 위하여 2005년 IMRIS 설립

- 2010년 4월 MRI 내에서 수술 가능한 특수로봇 NeuroArm 상업화
- 2010년 매출액 12.5백만 달러
-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중국 등에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



새내기 간호사 CHEER UP!! 신규간호사 직무교육 - 소진방지 프로그램

글 · 조영아 간호사 | 간호부

2011년 9월 23일.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말의 오후. 2010년 입사한 1년 차 간호사 50여 명이 대학로 부근에 모였다.

직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깝고도 먼 서울, 대학로에서 만난 이들은 직장에서 만났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었다.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으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리따운 20대 청춘들이었다. 한껏 예쁜 옷과 액세서리로 꾸미고, 오랜만에 나들이인지라 밝게 웃는 얼굴로 삼삼오오 재잘대는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사람의 인생에서 본다면 첫 직장을 들어가는 시기는 마치 산모의 뱃속을 떠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되어 신규, 신입사원, 사회 초년생으로 불린다. 1년이 지난 입사자들에게 돌잔치를 해주는 아기처럼, 1년 동안 잘 견디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함께 잘 해나가자는 격려와 응원의 행사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타 병원에서는 함께 등반을 한다거나 공연 및 전시를 즐기며, 다과와 파티로 1주년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신규간호사를 위한 직무교육은 좀 더 효율적인 직무교육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인천을 벗어나 서울

대학로에서 특강도 듣고, 공연도 보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신을 개발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었다.

모두 모인 자리를 격려해주기 위해 조의영 간호부장님께서 가을과 어울리는 시를 한 수 읊어주시며 교육은 시작되었다. 백 개가 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보면서 가을 풍경화와 시를 즐기고 있자니 저절로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어서 송경자 서울대병원 내과 간호과장님의 '탁월한 간호사 되기' 특강을 통해 롤모델, 비전을 제시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영민 교육 수간호사의 '사례중심 안전간호 전략' 강연이 이어졌다. 이 시간은 실제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실무와 접목되는 부분이 많아 피교육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시간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당도를 높일 각종 간식과 차들을 마음껏 향유하였으며, 점심시간에 배달된 도시락도 게눈 감추듯 먹어 치웠다. 따로온 햇살과 대학로의 가을을 벗삼아 가벼운 산책 후에는 본인들의 1년여 동안의 경험을 다섯 명의 신규 간호사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일하는 부서와 경험담을 기대보다 훨씬 잘 준비해 온 신규간호사들은 나머지

친구들에게 대단한 공감과 찬사를 받으며 성황리에 발표를 마쳤다. 신규간호사가 만든 음악을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어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이어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시간과 1년 후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신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소를 적고 봉투를 봉합하도록 하여 1년 후에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간호팀장님들이 모두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면서 나머지 일정을 함께 하여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간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간호사 Cheer up(소진방지) 프로그램**

1. 병동 수간호사가 3개월 이내 신규간호사 부모님에게 편지와 근무하고 있는 플로이드 사진 5장 보내드리기
2. 신규간호사의 명함 만들어서 제공하기
3. 한마음 산행
4. 독서토론



마지막으로 대학로까지 왔으니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자는 취지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코믹 연극 '라이어'를 50여 명이 함께 관람하였다. 마음껏 소리 내어 웃으며 즐겁게 공연관람을 마치고 배우들과 기념사진도 찍으며 마무리를 지었다. 대학로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 이후의 일정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부서에서 10년 넘도록 신규에서 경력자로, 다시 신규를 교육하는 교육자로, 때로는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나온 시간들과는 또다

르게, 이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나는 또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는 병원장님과 간호부장님, 그리고 기획하고 준비해온 간호부 모든 가족들, 무엇보다 즐겁게 참여해준 2010 입사자들에게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간호사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간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간호사 Cheer up(소진방지) 프로그램 중 수간호사가 신규간호사 부모님께 보낸 편지사례 }

동17병동 수간호사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

최유진 간호사 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병원 동 17병동에서 신규간호사 최유진 선생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영숙 수간호사입니다. 그동안 최유진 선생님을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양육해 주시고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또한 의료인으로 우뚝 서게 키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때로는 병원생활에 지치고 힘이 들 때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최유진 선생님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최유진 선생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최유진 선생님을 믿고 격려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입사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이제 한 팀을 책임지는 훌륭한 간호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본 병동의 수간호사로서 매우 대견함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칭찬과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병원 또한 사랑이 넘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 최유진 선생님이 잘 적응하여 유능한 간호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2011년 7월 28일. 동 17병동 수간호사 이영숙 배상



최유진 간호사

편지를 받으신 아버님께서 수간호사에게 보낸 답장 편지

이영숙 수간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유진의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애정과 사랑을 담은 편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줄망줄망하던 애가 어느덧 자라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니 부모 된 마음으로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편이 짠하기도 합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첫 직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융화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직장 내의 preceptor and Manager가 신입 인력의 평생 직장관을 결정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유진이는 좋은 분들을 만나서 복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책과 단계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아무리 조언을 하여도 직접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지침이나 충고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저의 직장생활 경험을 이야기 해 주어야 큰 도움이 안되고, 직접 동일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삶과 직장생활의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선배분들의 달고 쓴 말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뻔 일과 중에도 후배를 양성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가본 길과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고 싶었던 길에 대하여 잘 인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딘 초년생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스폰지와 같은 흡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도 있지만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새롭고 이론과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배들의 생각과 행동 하나 하나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습득하여 자기 것으로 얼마나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글이 길어졌습니지만 이는 이영숙 수간호사님께 유진이를 맡겼으니 전문인력으로 잘 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것이며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일이니만큼 모든 간호사분이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동17병동 간호사님 모두.. 화^^이^^팅^^"

2011년 8월 19일. 최유진 아버지 최낙식 배상



인도양의 눈물, 스리랑카 현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건너와서

글 · 박정아 간호단위책임자 | 심혈관계집중치료실

스리랑카는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다.

스리랑카는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다. 2009년에 스리랑카 아비사웰라 병원과 우리병원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면서 매년 스리랑카 아비사웰라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이종욱 fellowship training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우리 병원 여기저기에서 쉽게 만나곤 하였다.

이번 참석하게 된 심폐소생술 현지 교육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에서 주최하는 이종욱 fellowshi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임상교육'이라는 취지 하에 아비사웰라 병원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0년 개정된 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상급심폐소생술)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님과 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 기술 지원팀, 총 여섯 명이 한 팀으로 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5박6일 일정이었다. ACLS교육은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석자 이름표에서부터 교육에 필요한 각종 실습 기자재와 시나리오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

하였고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교육이라 다소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스리랑카로 향했다.

감사와 배려가 몸에 밴 사람들

9시간의 긴 비행시간을 거쳐 도착한 아비사웰라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그레도 규모가 제법 큰 병원이었다. 아비사웰라 병원에 있는 방문객, 환자,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병원 소개를 받았고 곧이어 따뜻한 환영식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우리병원에 연수를 왔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인하대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먼저 와서 인사를 건네고 환영해 주어서 낯섦이 곧 사라졌다.

연평균 27°C의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온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그 래도 강의실은 에어컨이 나오는 유일한 장소였다. 총 44명의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13-14명이 한 조가 되어 3일간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우성일 교수님의 개정된 BLS, ACLS 강의를 시작으로 DVD 시청, 실습이 진행되었다. 실습은 BLS 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흉부 압박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intubation을 직접 시도해 볼 수 있

도록 한 명 한 명 지도하였다. 이후 2조로 나누어 갑작스러운 CPR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주고 팀원들끼리 진행하도록 유도하였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팀장 역할을 맡아보고 나머지 팀원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 효율적인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목소리도 작았던 교육생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진짜 상황처럼 조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면서 열정적으로 실습에 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실습이 끝나고 교육생 중 한 사람이 일어나 준비해 온 편지를 읽어 주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동안 의료지원팀은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준 의료기기, 소모품들을 점검 및 수검 해 주고 장비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나마 우리 교육 팀은 에어킨이 나오는 시원한 강당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고스란히 더위를 온 몸으로 느끼며 비지땀을 흘리며 주어진 일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는 의료지원팀의 모습에서 그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강사에 대한 병원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는데 교육 중간중간 따뜻한 밀크 티와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그 나라의 직접 만든 특산물과 음식을 강의실 밖 테이블에 준비해 주었다.

맑고 선량한 스리랑카인들의 눈망울을 기억하며

마지막 교육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교육 기자재를

병원 측에 인수인계 하였다. 실습에 사용하였던 마네킹은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건네주고 마네킹 관리법, 청소법에 대해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송별회를 준비해 주었고 감사패까지 주었다. 또한 간호부 가족들은 같은 간호사로서 나에게 특별히 더 애정을 갖고 교육하는 내내 친근하게 대해주고 챙겨주어 더더욱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현지 임상교육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에 진행된 사업이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매우 만족스럽고 보람 있었던 교육이었지만 처음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많은 교육이었다. 아직 우리병원도 ACLS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좀 더 상위의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현장교육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반면 우리 병원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고 존경해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인하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도 우리병원의 활발한 사회 봉사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에 매우 감사해 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일정이 빠빠하여 교육이 끝난 다음날 낮 2시가 출국 시간이어서 아비사웰라 병원 의 어디도 관광을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맑고 선량한 스리랑카인들의 눈망울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그동안의 피곤함을 잠과 함께 물어버렸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길벗산악회 건강과 봉사의 기쁨까지 덤으로 얻는 아름다운 동행



길 벗 산 악 회

길벗산악회는 'safety mountain(안전 동반)' 을 모토로 시각장애인들의 '길벗' 으로 봉사하는 산악인들의 모임이다. 연수동 먼우금 사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길벗산악회 임도혁 대장을 만났다.

2006년 11월 포털 다음(Daum)의 카페(카페지기 '올짱' 은 임도혁씨의 낙넌임을 무대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봉사산행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산행이나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길에서 만나는 시각장애인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비장애인들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좋겠어요.' 임도혁 씨는, 이른 아침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험한 말을 듣기 일쑤라며 조금만 마음을 내면 되는 일인데도 귀찮아하거나 심지어 경원시하는 풍조가 안타깝다고 했다.

길벗산악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산행을 돕는 길벗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초기에는 자체장애자들과 함께하는 산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일회성 봉사나 전시용 행사가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취지에서 산악회 이름도 '길벗' 으로 지었다. 그러던 중 2008년 11월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의 요청으로, 우연히 시각장애인 산행 도우미로서 서울 남산을 다녀 온 것이 시작이 되어, 올해로 4년째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봉사산행' 을 이끌게 되었다. 복지관쪽 얘기에 따르면, 일회성 도우미를 맡아주는 단체들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산행 도우미를 해주려는 곳은 없다고 한다. 그만큼 힘들고 녹록지 않은 봉사활동이기 때문이다.

그 뒤, 매월 셋 째주 토요일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산행을 떠났다. 2009년 8월에는 장애인 20명, 도우미 21명이 한라산 등반길에 올랐다. 2010년에는 시각장애인 6명, 복지관 직원 4명, 도우미 2명, 총 12명이 백두산 등반에 올랐다. 대부분의 경비는 임 대장이 직접 뜻있는 후원자(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달했다. 봉사산행에 오르면, 시각장애인이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도우미들이 겁을 낸다. 시각장애인들은 발이 부딪치는 일쯤은 대수롭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치고 넘어져서 만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길 옆의 돌부리나, 머리 위에서 뭔가 부딪쳤을 때가 문제다. 임도혁 씨도 코스가 험할 경우엔 전맹(전혀 안 보이는 1급 장애인)분들의 참석을 말한다. "그동안 몇 번인가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분들이 다쳤을 때는 아찔하더라구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더 자주 산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하던 중에 인천의 섬트래킹을 시도



▲ 2010. 6. 16 백두산 중주트레킹(만자축이 임도혁 대장)



▲ 2011. 3. 18. 대이작도 섬트레킹

했다. 등반과 달리 트레킹은 평탄한 지형을 이동하는 것이라 시각장애인고 도우미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올해만 승봉도와 대이작도 두 번의 트레킹에 나섰다. 산악회 일반회원들이 울릉도를 갈 때도, 시각장애인 여섯 분이 함께 동행했다. 시각장애인의 지리산 등반을 이슈로 해서 KBS촬영팀과 산행을 떠난 적도 있었다. 악천후로 촬영이 중단되어 불발되긴 했지만...

매주 토요일 산행은, 현재 평균 참석자가 시각장애인 2명, 회원 40명이 참석하고 있다. 한 분은 전맹(全盲), 또 한 분은, 낮에만 사물의 윤곽을 어렵듯이 보는 정도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산행이란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모험이라, 도우미에 대한 장애인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한 분은 제 배낭을 잡고 따라오고, 다른 분은 옆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보통 5시간 산행이라, 비장애인도 많이 힘든데 장애인들은 더 힘들죠. 언젠가 5킬로미터를 업고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산행에서 도우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제가 계속 말로 안내를 합니다. "계단이다", "조심해라" 라고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지만, 꾸준히 참여한 분들은 비장애인만큼 산을 잘 탑니다." 어떤 코스의 산행을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거의 똑같이 따라오는 시각장애인 참가자가 5-6명이나 된다고 했다. 특히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은 육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이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분들에게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은 가장 소중한 체합이다. 힘든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산행에 적극 동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니를 필요로 하는 분들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성취감을 조금이라도 돕는 것, 그게 큰 보람이죠."라고 웃음 짓는 임 대장은 얼마 전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산행길에 오른팔을 다쳐서 아직도 치료중이다.

길벗산악회는 봉사산행으로 2009년 10월 28일 '흰지팡이날' (세계맹인협회가 제정한 기념일) 행사에서 인천시 봉사상을 수상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하지만 임도혁 씨를 가장 기쁘게 한 선물은, 시각장애인 12명이 초대된 점심식사 자리에서 그분들이 정성껏 마련한 상품권(10만원 상당)을 받았을 때였다. 봉사라는 건, 무엇보다 장애인 중심, 자원봉사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행사 위주와 기관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많이 아쉽다는 임도혁 씨. 닉네임 '올짱' 은 대장, 회장, 가장을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로 지은 것인데, 장애인들에게 실명보다 닉네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자기투정이나 자기원망을 하지 말라고 해요. 도우미 탓도 하지 말고요. 스스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죠.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임도혁 씨는 내년에 장애인 트레킹연맹 을 만들려는 꿈을 갖고 있다.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 했듯이, 건강과 봉사의 기쁨까지 덩으로 얻는 아름다운 동행,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산행(혹은 트레킹)에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 글 · 권영선 I (사)희망배달본부 본부장 *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032-830-1004

* 인천 길벗산악회 cafe.daum.net/safetymt 올짱 010-2746-1090

작은 나눔 큰 행복

글 · 민효남 간호사 | 외과계집중치료실



향진원 아이들과 문학경기장 Sky-box를 다녀와서...

인하대병원 집중치료실 고객TF가 향진원 아이들과 인연을 맺어온 것은 2010년 10월 부터였다. 지역사회 봉사의 일원으로 한 달에 한 번 향진원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책읽기, 만들기, 협동놀이 등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진지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났다. 항상 실내 놀이만 해오던 우리의 활동을 좀더 아이들과 함께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즐거워할 놀이를 고민하던 중 문학구장의 Sky-box가 생각이 났다. 여러 방면으로 Sky-box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보다, 외과계집중치료실(B)에서 배정받았던 날을 양보 받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과의 야구경기 관람을 준비하는 동안 팀원들은 왠지 모를 설렘을 경험하게 되었다.

드디어 Sky-box 가는 날 꾸물꾸물한 하늘에서 작은 빗방울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우리 팀원들은 야구경기가 취소될까 가슴을 졸여야 했고 Day 근무가 끝나갈 무렵 비는 다행히 그쳐 있었다. 우리는 먼저 야구장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신나서 이곳저곳을 뛰어 다녔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야구 경기 시작 전 준비해간 피자, 닭 강정, 떡볶이, 김밥 그리고 간식들로 배를 채우고 1층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차도 타고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등을 탔다.

야구 경기가 시작된 후 직접 보는 경기가 신기한지 난간에 매달려 사뭇 진지한 눈빛으로 그리운드를 응시했다. 6~7세 어린이들이라 집중력이 약할 것 이라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꽤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같이 함성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안타까운 순간엔 가슴도 졸이면서 경기를 관람했다. 행여나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아이들 한 명에 간호사 한 명씩 짝을 이루었다. 자 곳은 아이의 짝궁은 쫓아 다니느라 진땀이 나고, 투정부리는 아이의 짝궁은 울음을 그치게 하느라 같이 얼굴이 빨개졌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절반쯤 야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우리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했다. 어린아이들이라 돌아가 씻고 밤 9시 취침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 이었다. 아쉬워하며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 보내는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다. 향진원 방문 초기에는 즐겁게 같이 놀다가도 돌아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우리가 활동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면 안겨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Day 근무 후 향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들의 가슴엔 말로 표현 못할 벅침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워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물품과 간식을 준비할 수 있게 매달 화비를 내주시는 집중치료실 모든 간호사님들과 인기가 많은 Sky-box를 양보해 주신 외과계집중치료실(B) 간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중고를 겪던 중 따뜻한 후원의 손길에 힘입어



*밝고 적극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까지 소유한 예원이...
바쁜 엄마 아빠의 도움하나 없이 오히려 부모를 도와가면서도, 전교 1등까지 해내는,
그야말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집안의 자랑이요 기대이며, 뿌듯함이었습니다.*

열심히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하던 지난 해 10월 말 즈음 기말고사를 봐야하는데 시험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과학 실험용 돋보기를 챙겨 들고 등교를 합니다. 이튿날 시간을 내어 시력검사 한번 하자하고 방문한 안과. 단순 시력측정을 위해 방문한 안과에서 심상치 않은 소견으로 큰 병원으로 옮겨 MRI를 찍어야 했고, 그때 이미 너무 커버린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뇌하수체를 싸고 지란 생식세포종이라는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진단과 동시에 급격히 의식을 잃어가고, 토하고, 거의 실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각을 다루는 종양 제거 수술 2회, 4회 차에 걸친 항암약물 치료, 다시 종양절제수술, 그리고 31회에 걸친 방사선 치료까지 꼬박 9개월에 걸쳐 항암치료가 이어졌고, 지난 7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뇌종양 중에서도 뇌하수체라는 호르몬 관장 주변을 수술하다보니, 감상선기능 저하, 부신기능 저하, 체온조절 기능 상실, 단순기억 상실 등의 수술 후유증이 찾아왔고, 또한 약물과 방사선 치료는 급격한 체중 증가와 골수억제, 고열, 고열로 인한 탈수, 전해질 불안 등으로 예원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항암치료는 무사히 7월에 끝이 났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여러 후유증으로 인해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저 보면 참으로 어려운 예원을 인하대병원 교수님과 간호사님, 재활의학과 치료사 선생님들은 너무도 따스하고 꼼꼼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특히 김순기 교수님께서는 예원의 붓기와 통증, 얼굴색까지 살피시어, 작은 스침에도 가해지는 온몸 통증과 두통, 허리통증 등도 다 짚어내셨고,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아이의 병간호가 길어짐에 따라 또 다른 아픔이 있다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 또한 사회복지사 원공주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시름 덜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11개월 만에 예원은 병원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시력도 제법 회복되었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예원은 너무 힘이 없어 오랜 시간을 견디지 못하지만, 눈빛만은 열정을 그대로 뽐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누워있어도, 자고 있어도, 가끔은 앓아 쓰러져 있어도 그러한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느끼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견디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는 인하대병원에게 온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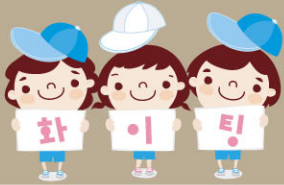
* 예원이(가명은 올해로 10살, 작년 11월에 뇌종양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힘겨운 투병생활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던 중에 따뜻한 후원의 손길에 힘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상담 및 후원 문의: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원공주 사회복지사 ☎전화 032-890-2870

노사체육대회!

스트레스 한방에 훌~
조직력, 단합력으로
뽕뽕 뭉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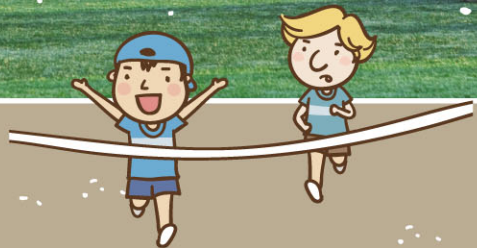




GOAL



치즈



트라자 캠프

Q&A



만성소화불량 환자에게 신경안정제 처방 흔한 일

Q : 주위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천연 성분의 대체 약물이나 식품을 먹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A : 호르몬제를 5년 이상 복용하는 경우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5년 이상의 호르몬 대체요법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걱정과 함께 자의적으로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과 관련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천연 추출물 등으로 대체 치료를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이 기존 호르몬 제제에 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일차적 약물은 아닙니다. '천연 성분' 이라고 해서 반드시 약물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천연 성분 중 안전성이 밝혀진 것은 그리 많지 않은 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호르몬 제제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용자를 통해 특실이 이미 파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천연 제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치료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각 개인에 따른 이점과 위험성을 정확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 의사와 상담 후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면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소화불량 증상을 치료하는데 왜 신경안정제를 사용하나요?

A : 보통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여 위내시경을 하여 위궤양이나 식도염 등이 없음에도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 신경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위염은 환자의 불안, 우울, 긴장 등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되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위의 운동을 방해하여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 환자의 경우 신경안정제를 처방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통증이나 불쾌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즉,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비로소 증상(통증이나 불쾌감 등)을 느끼게 되지만,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우 이러한 자극에 대한 역치(자극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가 낮아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양의 안정제 혹은 항우울제를 사용함으로써 자극에 대한 역치를 올려주고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안정제의 사용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하다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된다 된다 행복이 된다



100세까지 큰병도 걱정없게 무배당 LIG 100세 행복플러스 보험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행복한 생각으로
가족의 행복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무배당 LIG 100세 행복플러스 보험

- 일상에서 일상까지 상해/질병/의료비 등 건강과 생활에 다양한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주요 3대진단, 각종 수술 및 의료비 등 신당보 탑재를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해당 특약 가입시)
- 납입기간 뿐 아니라 보험만기까지 중도인출을 통한 목적자금 활용 가능
- 만일의 경우 80%이상 후유장애시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광신형 담보는 제외)



국기영신상대성
2011 국가생산업대상
(금융부문 대외)



2011 국가생산업대상
우연하는 기업(AA등급)

LIG 손해보험으로

앞날에서 일생까지!

희망파트너



고객감동의 진료, 사랑, 봉사, 할 수만 있다면 무료병원까지.....

글로벌병원 | 사재형 원장



글로벌 병원은 성인은 물론 인천 지역 유일한 소아 재활전문클리닉을 비롯하여 신경정신과, 일반 내과 등의 진료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520병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 256명의 직원이 고객 감동의 진료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오늘도 열심을 다한다.

특히 재활전문클리닉으로서 글로벌 병원은 전문적인 의료진과 치료진 구성은 물론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편리한 것도 재활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큰 장점이 된다. 또한 재활치료도 운동, 전기치료 등의 기본 재활치료는 물론 작업, 언어, 음악, 놀이, 인지, 연하 재활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최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재활환자를 위한 글로벌 병원의 노력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재활병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소아 재활치료의 경우는 부모의 이해와 참여 유도, 병원 치료와 가정치료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더욱 힘든 작업이다.

환자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재형 원장은 병원 내 의료사회사업실 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퇴원 후 사회 복귀를 연계, 진료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후원금 연결 작업 등에 적극 나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의대 1학년 때 위암을 앓던 아버지를 10여 개월 만에 떠나보낸 사재형 원장이다. 그 당시 수술비가 없어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픔도 겪었다. 사재형 원장이 환자가 진료비가 없어 병원을 나서는 일을 막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능만 하다면 무료수준의 병원도 꿈꾼다.

‘당장 제일 아쉬운 것은 산재환자 등을 비롯해서 재활 치료 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재활치료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큼 경제적 여건도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 제도 장치가 참 아쉽죠.’

아무래도 글로벌병원은 노인 환자분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부산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재형 원장은 노인 환자를 맞는 마음이 남다르다. ‘아들 집에 와 있다’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하게 진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사재형 원장은 진심으로 전한다.

원대한 꿈이나 거창한 계획보다 순간 충실하지는 소망, 모든 환자가 사고 없이 건강하게 글로벌 의료진의 손길에서 마음 편히 치료 받길 바라는 사재형 원장이 이끄는 글로벌병원은 깨어있는 병원임을 단순간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 인천 광역시 부천구 삼산동 ☎032-262-9000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자문위원 위촉

2011년 9월 21일,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님은 (사)건강사회운동본부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으로 한광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와 이수성 前 국무총리도 함께 위촉되었다. 지역사회보은'이라는 설립이념에 따라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물론 아프리카 우간다 등 지구촌 의료사각지대에 사랑의 인술을 적극 전파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사)건강사회 운동본부와 함께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의료봉사, 세계인의날 행사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을 해오고 있다.

2011 인도 해외의료봉사 성료 ●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7박 8일간 진행된 인도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포스코건설, 우리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의료봉사는 포스코건설 용유아연도금강판 생산공장(CGL)이 위치한 망가흔 지역에서 실시했으며, 이 지역은 의료사각지대로 인근 3개 마을에서 내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약 600여 명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포스코건설 해피빌더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캠프 외에도 손 씻기, 칫솔질 등 위생교육과 영화상영 및 민속놀이체험 등 대한민국을 알리는 민간외교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인하대병원, 암진료상담실 개소 1주년 기념식 ●●

2011년 9월 21일, 인하대병원은 '암 진료 상담실 개소 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첫 돌을 맞이한 인하대병원 암 진료 상담실은 암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암 종류별 예방, 조기검진, 초기진단과 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 의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내, 퇴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환자 중심 치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추적관리가 특징이다. 인하대병원 암 진료 상담실의 지난 1년간 상담건수는 총 3,472건으로, 이는 월 평균 301건에 달하며, 암 환자 전용검사에예약시스템 시행을 통해 암 환자 진료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암 종류별 맞춤형 교육 개발 및 암 환자 돕기 후원회 결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제 1회 지역 약물감시센터 <약물유해반응 심포지엄> 개최 ●●●

2011년 11월 2일, 인하대병원 지역 약물감시센터(센터장 알레르기내과 김철우 교수)는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제 1회 약물유해반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10년 11월 26일, 인천지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지역 약물감시센터>로 선정된 본 센터는, 이번 심포지엄



을 개최하며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그 동안의 실적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약물유해반응의 보고와 평가〉, 〈약물감시 활동과 개국 약사의 역할〉 그리고 〈항결핵제에 의한 약물유해반응〉 등의 주제 발표를 가졌다.

SPECT/CT의 활용과 비전 심포지엄 개최 ●

2011년 11월 17일, 인하대병원 핵의학과는 〈SPECT/CT〉의 다양한 활용 분야와 임상결과를 소개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난 2011년 3월 3일 도입된 〈SPECT/CT〉는 SPECT의 기능적 영상과 CT의 해부학적 영상을 융합하여 영상 진단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최적의 장비로서, 그동안 사용하던 Gamma Camera 보다 정확한 영상진단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즉, SPECT와 CT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한 첨단 장비로 주요 진단 분야는 골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및 암진단 등이다.



이중욱 펠로우쉽 연수 간호사 수료식 개최 ●●

2011년 11월 14일, 인하대병원은 이중욱 펠로우쉽으로 진행된 캄보디아 및 라오스 간호사들의 연수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루이나 등 4명의 간호사들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서 간호 연수를 받았으며, 1달 간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들은 인하대병원에서 배운 선진 의료를 바탕으로 자국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인하대병원, 찾아가는 공개강좌 - 인일여고 자궁암과 유방암의 이해 ●●●

2011년 11월 16일, 인하대병원 산부인과 황성욱 교수와 외과 조영업 교수는 찾아가는 공개강좌를 위해 인일여고를 방문했다. '자궁암과 유방암의 이해' 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공개강좌는 암질환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확대사업 일환으로 고등 정규과정에서 얻기 힘든 의학적인 정보와 실생활에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참석한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인하대병원은 지속적인 외부 공개강좌로 지역주민에게 먼저 찾아가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베트남 해외 에이전시 관계자 팸투어 실시 ●●●●

2011년 11월 9일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진행된 팸투어는 중국 중의사 및 베트남 한방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투어단으로 본원 소개 및 최신 의료장비 등 시설 견학을 하였다. 이들은 본원 래피드트랙/사이버나이프센터 및 국제진료센터, 건진센터 등을 보고 크게 만족하였다.



인하대병원, 암 환우를 위한 '사랑의 모자 뜨기' 행사 개최 ●●●●●

2011년 11월 7일, 인하대병원은 암 환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모자 뜨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랑의 모자 뜨기' 행사는, 항암제 치료로 머리카락을 잠시 잃은 환우에게 직



원, 환자본인, 보호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모자 뜨기를 시행하고, 모자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해 암 극복의지와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 되었다. 인하대병원 암 환자 돕기 후원회의 조의영 간호부장은 ‘금번 사랑의 모자 뜨기 행사는 암 환자와 보호자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준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함께한 직원과 봉사자들에게도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든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존스홉킨스보건의대학원 정현재 교수 초청 '2011 환자 안전 특강' ●

2011년 10월 31일, 인하대병원은 존스홉킨스보건의대학원 선임연구원인 정현재 교수를 초청하여 '2011 환자 안전 특강'을 실시했다. 환자안전은 JCI 및 의료기관 인증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이다. 인하대병원은 환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존스홉킨스 보건의대학원 선임연구원으로서 글로벌 환자안전관리 표준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재 교수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 인천 남동구청,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를 위한 업무협약 ●●

2011년 10월 13일, 인하대병원 알레르기질환 환경보건센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숲 치유를 통한 알레르기 질환 어린이 예방과 관리'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와 남동구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학적 전문활동과 지역사회의 알레르기 질환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며, 환경요인과 알레르기질환 간 상호 작용 연구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의료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팸투어 실시 ●●●

2011년 9월 26일, 인하대병원은 미국 의료관광 시장 확대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미국 내 보험설계사, 보험제공자(기업주 및 상조회 임원), 환자송출업체, 환자 자조그룹으로 구성된 투어단은 인하대병원 의료관광 상품의 우수성을 설명 받고, 우리 병원의 최신 의료기기와 시설을 둘러 보았다. 이번 미국 투어단의 방문 목적은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보험상품의 출시와 활용을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치료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보상해주는 미국 내 의료상조회 회원에게 한국의 병원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인하대병원, '실천이 답이다' -고객 접점부서 대상 CS 교육 실시 ●●●●

2011년 10월 5일부터 2011년 11월 18일까지 12개 고객접점부서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고객과 통(通)하기 위한 성공전략 '실천이 답이다'>를 슬로건으로 2011년 CS교육을 실시하였다. 고객을 이해하고, 더 먼저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인하대병원 직원이 되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하대병원 건강 문화 CEO과정 - 조찬특강 '금년새의 하모니 리더십' ●

2011년 10월 12일, 인천 하버파크에서 인하대병원 건강 문화 CEO 과정 조찬특강이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년새의 "하모니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금년새의 경험에서 나오는 인생, 철학, 교훈 등에 대하여 재미있고 유쾌한 강의였다. 특강에 참석한 60여 명의 CEO 원우분들과 본원 임원진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실시된 강연에 감명을 받았다.



인하대병원과 함께하는 제1회 백혈병 어린이돕기 희망콘서트 성료 ●●

2011년 10월 4일, 1004-Day를 맞이하여 인하대병원과 (사)희망인천 [천사운동본부]가 함께하는 '제1회 백혈병 어린이돕기 희망콘서트'가 하버파크에서 개최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환우들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기쁨을 주고 늘 곁에 희망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인하대병원 교직원 사랑나눔 사진전 개최 ●●●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인하대병원 지하1층 문화광장에서 홍보팀과 진료지원팀 공동주관으로 '인하대병원 교직원 사랑나눔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인하대병원 교직원들의 국내외 의료봉사, 환우 위로 음악회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작품 30점이 전시되었고, 일부 작품은 판매되어 수익금은 구매자 명의로 사회복지기금에 적립하였다.



인하대병원, 법무부 및 건강사회운동본부와 함께 '2011 한마음 걷기 축제' 의료봉사 실시 ●●●●

2011년 10월 30일, 인하대병원은 삼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법무부와 건강사회운동본부 주최로 개최된 '2011 한마음 걷기 축제' 행사에서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혈압/혈당검사, 안과 검사, 내과 진료 및 X-RAY 촬영 등 수준 높은 전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사에 참가한 500여 명의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성형외과 황 건 교수, 6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 최다발표부문 수상 ●●●●●

2011년 10월 21일 개최된 6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성형외과 황 건 교수가 한길연구상 우수논문 최다발표부문을 수상하였다. 그동안 204편에 달하는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해왔으며, 대외적으로 대한성형외과학회 편집위원과 평의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편집위원,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학술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위원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김영모교수, 제2회 아시아 두경부종양학회 초청연자로 특강

제 2회 아시아 두경부 종양 학회(Asian Society of Head and Neck Oncology Meeting)가 인도의 고아에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본원에서는 현 대한두경부외과학회장이며, 대한갑상선부학회회장인 이비인후과 김영모교수가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초청연자의 자격으로 '침샘 줄기세포 (salivary gland stem cell)' 를 주제로 한 특강(keynote lecture) 을 진행하였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이비인후과 임재열 교수도 학회에 참석하여 'Evaluation of Salivary Gland Dysfunction Using Salivary Scintigraphy after Radioactive Iodine Therapy' 의 주제로 학회 발표를 하였다.



신경외과 정준호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제51차 추계학술대회

혈관부문 최우수 논문상 수상

2011년 10월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2011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제 5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본원 신경외과 정준호 교수가 혈관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주제는 Newly suggested method of decompressive craniectomy for patients with middle cerebral artery infarction 이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홈페이지 www.inha.com ▶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인하대병원 여성암센터, 여성암 환우를 위한 외모관리 프로그램 개최



2011년 11월 15일, 인하대병원 여성암센터는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여성암 환우를 위한 외모관리 프로그램' 을 개최했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인 환우로서, 현재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중인 50여 명의 환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외롭고 힘들게 치료 과정을 겪으며 잃었던 여성의 아름다움 되찾아주며 자신감을 되찾아 주고자 진행되었다.



여의도 공원에서 핑크리본 마라톤 대회

2011년 10월 9일 여의도 공원에서 핑크리본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유방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유방암 치료율을 향상

하기 위한 대국민 개몽을 위한 기념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신민아, 조인성, 고두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핑크리본 공개강좌



2011년 핑크리본, 유방암 대국민 공개강좌가 10월 19일 3층 강당에서 김세중 교수 주체로 열렸다. 200여 분의 참석자를 모시고 유방암의 현황, 유방 재건 및 성형수술, 유방암과 성이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재건수술을 진행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삶의 질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보여 많은 환우들의 관심을 보였으며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 ▶ **다음 행사** - ① 11월 10일 야유회 인천대공원
② 11월 15일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③ 12월 15일 파랑새 송년의 밤 (장소는 추후 공지)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1.09.21



출연: 임미진 교수/류미티스
프로그램: MBC 6시 뉴스매거진
내용: 레이노 증후군의 예방과 치료

2011.09.26



출연: 최광성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SBS 건강백세스페셜
내용: 탈모의 예방과 치료

2011.10.05



출연: 임중환 교수/산업의학과
프로그램: MBC 불만제로
내용: 가슴기 살균제의 위해성

2011.9.18



출연: 권대규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CJ 홈쇼핑 - "사랑을 주문하세요"
내용: 사회공헌 - 의료비 모금

2011.9.20



출연: 영종메디컬센터
프로그램: YTN 뉴스
내용: 영종메디컬센터 소개

2011.09.22



출연: 신정현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EBS 라디오 '부모'
내용: 탈모의 원인아 치료

2011.09.22



출연: 김철웅 교수/정신과
프로그램: SBS '세상에 이런일이'
내용: 경직성하지마비 여고생 상담

2011.10.03



출연: 이연지 교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KBS 과학자취미
내용: 태권도의 의학적 분석

2011.10.10



출연: 남해성 교수/호흡기내과
프로그램: T-broad 인천방송 뉴스
내용: 환절기 호흡기 질환

2011.10.25



출연: 권준 교수/심장내과
프로그램: T-broad 인천방송 뉴스
내용: 추운날씨 고혈압 예방법

친절직원 소개

10월 국제협력팀 스베들라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단순히 통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안내하며, 출국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직원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외국환자들에게 인하대병원을 알리고 더욱 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교육수련부 박주용(정형외과 R1)



전공의에게 친절이란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진료를 하고, 사소한 작은 문제들까지 해결해 줌으로써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항상 웃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전공의의 친절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친절직원에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친절직원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친절한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lobal INHA

수술 후,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 소독을 하게 되는 데, 이 상황에 필요한 영어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ctor: Good morning. I will do your wound dressing.
Please expose your wound so I could clean it.
좋은 아침이에요. 환자분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려고 합니다. 소독 할 수 있도록 수술 부위를 보여주세요.

Patient: Ok. I'm ready. It's my lower back.
네. 준비됐습니다. 제 등 아래쪽입니다.

Doctor: Please take a seat and let me see your wound. We will put some povidone-iodine to cleanse your wound.
앉아서 수술 부위를 보여주세요. 수술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하겠습니다.

Patient: Will that hurt, doc?
소독하면 아플까요, 선생님?

Doctor: It won't hurt a bit.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Patient: I see.
알겠습니다.

★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원보의 엽서 또는 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시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 ①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한 분
- ②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③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2. 봉사활동시간(평일)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①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② 봉사당일 무료주차
- ③ 행사 참여 : आय회, 송년회, 간담회
- ④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⑤ 의료비 감면(6개월 이상 봉사자)
- ⑥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시 우선 자격 부여

봉사활동 부서별 내용

활동부서	대 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 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 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붕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문의 : 병원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4)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1년 11월 17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306명	1,073,247,798원	899,871,645원	

◎ **기부자 현황** | 2011년 9월 20일 ~ 2011년 11월 17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11.10.25	임정혁	10,000,000	인하대 의과대학 동문/ 우리비이비인후과 원장
11.11.07	건강문화CEO 과정 총원우회	2,000,000	(완납)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분만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12/08(목), 1/11(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 대장암의 이해 •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갤러리 전시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장소
2011. 12. 03 ~ 2011. 12. 17	인천물그림회 전시회	이순자 외 15명	2층 갤러리
2011. 12. 17 ~ 2012. 01. 07	조영수 개인전	조영수	2층 갤러리
2012. 01. 07 ~ 2012. 01. 21	장정숙 개인전	장정숙	2층 갤러리



문화 행사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1. 12. 05 ~ 2011. 12. 09	가훈쓰기	서예가 신명섭	지하 1층 문화광장
2011. 12. 20(화) - 오후 1시	플립스 플루트 앙상블 찾아가는 음악회	플립스플루트 앙상블	1층 로비
2011. 12. 23(금) - 오후 3시	토요타 병원자선음악회	동물원	1층 로비

인하대병원 암진료안내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비만센터 ■ : 여성암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진료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진료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8:10~09:30 서비스진료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	갑상선, 당노병, 비만	월, 화, 목	목	여성암센터 갑상선 분문휴가: 2011. 10. 9까지 조직개사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갑상선, 당노병, 뇌하수체	화, 수, 목				
		권계숙	*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홍성빈	*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노병	수, 목	월 (화), 수	
		방병욱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김소현	*	갑상선, 내분비, 당노병, 비만	수, 목	월 (화), 수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조영명	*	유방, 내분비외과(갑상선암), 부신종양	월, 화, 목	월 (화), 목	
	외과	허영석	*	소화기외과, 위, 위암	(화)	화, 목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수), (금), (일)	(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영모	*	두경부종양(목), 갑상선, 음성언어(편도)	월, 화, 목	월, 화, 목		
		이민희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임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언어(편도)	금	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이민희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8:10~09:30 서비스진료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월, 수, 목, 금		
		권계숙	*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병욱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외과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이민희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김영수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목	서비스진료	부인암	신부인과	이영연	*	부인과종양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경변	월, 목	월, 목				이병익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이정일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화, 수	수, 금				송은성	*	부인과종양	월 (화), (수)	(수)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황성호	*	종양학, 목감경	월 (화), (목), (금)	화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박정우	*	부인과종양	목	월, 목, (금)	
	외과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이민희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동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목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원희	*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여성암센터 오후진료: 1400~1630	
		정 석	*	담도암, 췌장암,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윤상민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성도환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월, 화, 수	수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이민희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종양내과	이민희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김우철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언어(편도)	금	화,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목	정신과 () : 주별 진료	정신과 클리닉	이영연	*	불안장애	월, 화, 수	목	여성암센터 15:00~17:00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목 (1,3)			김영호	*	취주술상, 언어장애, 발동증, 외지보조기	목	월, 수, 금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화), (목)	(화), 화, 목			최광성	*	요양, 조감질환, 허드, 모델이식, 피부과, 레이저	화 (목), 금	월 (목), 목		
		조재학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목, 금			신정현	*	해위연수(2010. 9 ~)	화 (목), 금	월 (목), 목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수, 목	월, 화, 수, 목, 금			송희진	*	피부암, 백반증	화	화, 금		
	흉부외과	김광호	*	폐, 종격동, 기흉, 다한증	화 (수), 목				이민희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수)	월, 목 (수)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수 (수)	수, 금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금	화,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광호	*	폐, 종격동, 기흉, 다한증	화 (수), 목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증, 소아	월 (수), (목)	수	여성암센터 ▲ 뇌종양, 안면경련, 상지신경클리닉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수)	월, 목 (수)			박원희	*	뇌종양, 뇌하수체, 뇌파, 뇌막, 전이성종양, 뇌동맥류, 안면경련, 경맥혈관증, 도파도병, 뇌혈관기형	월 (화), 수	목 (수)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수 (수)	수, 금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종양내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혈액암	혈액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연부육종 및 골육종	정형외과	김준순	*	인공관절성형술, 고관절, 골절환, 관절염, 골종양	월, 수	월	여성암센터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이동주	*	상지, 수부, 종양, 관절염	월, 금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권대규	*	종양, 소이정형, 뇌성비대, 외상	목	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철수	*	종양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순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목	소아암	종양내과	김철수	*	종양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여성암센터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금	심장혈관센터 (☎2440~1)	신장센터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권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금	월, 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대혁	*	부정맥, 심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월, 수, 목	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신성희	*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화, 목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박상돈	*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화, 목										
소화기내과 (☎2224)	일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수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진료	수					
	김영우	*	간염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08:30~09:30 서비스진료 내시경센터 (☎2540~1)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수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일반	송준호	*	혈액투석진료	수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이도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목	오후진료: 13:00~16:30 오전진료: 10:30~12:00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송준호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목	월, 목			일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정석	*	담도암, 췌장암,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이정일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화, 수	수, 금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정현성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금										
	정은선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김경선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박성현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최영철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유성수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박현신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일반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수(2,4)	() : 주별 진료 ■ 폐암센터	류마티즘센터 (☎2210~1)	박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푸스	월, 화, 수, 목, 금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목(1,3)			김성렬	*	해외연수(2011. 1 ~)	월, 목, 금	월, 수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화), 목(화)	월(화), 화, 목			임미진	*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목, 금	월, 수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목(화)			정경희	*	관절염, 골다공증	화, 수	화, 목, 금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수, 금	화(화), 금(금)			일반			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폐암 내과 센터 (☎3890)	이홍렬	*	폐종양	금		알레르기내과 (☎2216)	내과계일반 (☎2250)	김철우	*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목, 금	화, 목			
	곽승민	*	폐종양	수				일반			수				
	류정선	*	폐종양	화, 목				일반	전체적인 내과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조재화	*	폐종양	수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이현규	*	폐종양	월	목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남해성	*	폐종양	월	화, 금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금	목			
	흉부외과	김광호	*	폐종양	화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김정택	*	폐종양	월			목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화), 목(목)	수(수), 금(금)	월(월)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윤용한	*	폐종양	수			금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이명훈	*	폐종양	수			금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정신과	이명훈	*	불안장애	화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화(화)	화, 목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금	목	□비만센터 △여성암센터(갑상선조직검사)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목	금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수, 목			최윤미	*	소아외과	화, 목	금			
		홍성빈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수, 목	월 (화), 수		김장용	*	혈관내치료	수(수), 금(금)	월, 수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수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목			
이승연		*	당뇨, 내분비질환	월	화, 금	김중현		*	유방, 내분비외과	월	목				
비만 내분비내과 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흉부외과 (☎2280)	신경외과 (☎2370)	박준은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화, 목	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소현	*	성인비만, 대사증후군, 2형당뇨병	수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연구관: 2011.6.~2011.11.30	월, 화, 목	월, 목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김영은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월), 수(수)	월(월), 수(수)		월(월), 수(수)	◆뇌종양, 안면경련중, 삼차신경클리닉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박현신	*	뇌종양,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화), 목(목)	월(월), 수(수)		월(월), 수(수)	
	최윤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월, 수			
	김연수	*	재형흡입술, 영양학수, 위하수고혈압, 부형생술	수				윤순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사이버나이프, 척추추간주	수(수), 금(금)	화, 화(수)			
	김순기	*	소아비만	금				정준호	*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기형, 뇌내외과, 뇌신경외과	수(수), 금(금)	화, 화(수)			
	이진우	*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목				일반			화	목			
	가정의학과	이연지	*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화, 목							
	일반				금										
신장내과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혈액투석진료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목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수	월, 목, 금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창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신뢰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신뢰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정형외과 (☎2380)	박승림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추간증, 골다공증		수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수면무호흡,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수요일			
	문경호	*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김영모	*	두경부종양(목), 음성언어(편도x)	월, 화, 목		▲아지려응급클리닉			
	김영구	*	스포츠해상술, 관절염관절, 인공관절술, 관절염	월, 수	수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월, 금	수(▲)				
	강준순	*	슬관절인공관절술, 고관절, 슬관절, 정형, 골다공증	월, 수	월			최호성	*	중이염,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편도	화	수, 목				
	김려성	*	스포츠해상술, 슬관절, 무릎, 족관절, 정형, 관절염	화, 목	목			일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추간증, 골다공증	월, 금	수			김영호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수면무호흡, 비과	수	월				
	이동주	*	상지, 수부, 중앙, 관절염	화, 금	화			최정석		두경, 소아비인후과, 난청, 수면무호흡, 정형, 귀질환	토	목, 금				
	김범수	*	족부, 족관절, 외상	수	수,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중앙, 외상	목	월, 목			정신건강의학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 우울증, 알콜중독, 노인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증보육클리닉		
						김철응			*	난청, 청각장애, 음성장애, 뇌전증, 뇌정신병	월, 목	수, 목		조기정신클리닉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신장기형, 미용	화, 목	화, (목)	◆일, 화, 목, 금, 토, 일	이정성	*	소아정신장애(뇌·학·주·연·어·노·장애)	월	화, 목, 금	황태클리닉(성형외과)				
	김연수	*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세수술, 피부과(레이저)	월, 수, 금	(월), 수(▲)	◆유방재건클리닉 ■비만센터(PS 외래에서 진료)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수, 목	월, 화, (목)	▲치매조기검진클리닉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그밀한,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화, (목), 일	월, (화), 목	◆모발 및 모발이식클리닉	이영훈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월 화 수 목 금 토	화, (목)	노년치매클리닉				
	신정현	*	에이드피부염, 알레르기, 백반증, 두드러기, 피부과, 레이저	수, 금	월, 화, (금)	◆피부미용클리닉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정신건강의학과클리닉				
	송희진		백반증, 피부미용, 피부노화	화, (수)	화, (수), 금	◆홍피(레이저)클리닉	신경과 (☎3860)	이희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일 반			월, 목	(월), 수, 목(수)	▲홍피(레이저)클리닉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 (목)	▲뇌졸중클리닉			
					▲스피어(레이저)클리닉	최성애		*	치매, 기억장애	월, (수), 금	수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박희권		*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금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월, 수	수		배근기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목	월, 화, (목)	▲수면클리닉				
	박원희	*	* 요실금, 중앙, 전립선질환	화, 금	화, 3	금 오후, 2번주 진료	일 반			화	화, 수, 금	만 15세 이상 진료가능				
	윤상민	*	* 중앙, 결석, 신아식	화, 금	화, 1	금 오후, 2번주 진료	재활의학과 (☎2480)	정한영	*	뇌졸중(중풍), 소뇌질환, 장애, 뇌양성, 뇌종양	월, (금)	수	★뇌양성, 뇌종양			
	성도환	*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월, 수	수, 4	금 오후, 2번주 진료		김강환	*	근골격계운동장애, 요실금, 말초신경병	화, 목	수(수), 목	★초음파 영상, 재활클리닉			
이택	*	* 소아배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야뇨증	목	월, 목		김명옥		*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외지보조기	수	월, 화, (목), 금	★언어장애				
류지간	*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목	월, 목, 2	금 오후, 2번주 진료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스포츠클리닉(1,3주)				
산부인과 (☎2270)	이우영	*	* 부인과중앙	화, (금)	(월), (목), 금	□여성암센터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간진센터			
	이병익	*	* 중앙학, 불임·폐경기	수, 목, 금	월	(월), (수), (수)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화, 수, 금	(월), 수, 목	▲비만센터			
	송은섭	*	* 부인중앙	월, (수)	(수)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황성욱	*	* 중앙학, 복강경	(월), (목), 금	화			국재진료센터(☎2080)	박홍재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연장진료 08:00~19:00		
	박지현	*	* 주산기외과, 산과초음파	월, 수	(월), 수, 목				여성암센터 Cancer Center	산부인과	이우영	*	* 부인과중앙	금, 목	수	
	박정우	*	* 부인과중앙	목	(화), 목, (금)						송은섭	*	* 부인과중앙	화, 수	수	
	정현재		산과, 내시경	화	월, 수, 금						황성욱	*	* 중앙학, 복강경	월, 목		
	일 반							박정우			*	* 부인과중앙	화, 금			
소아청소년과 (☎2260)	손병관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목	만 15세까지 소아내과	통증치료실 (☎3921)	이두익		통증치료	화, 목	화				
	홍영진	*	* 심장, 감염	수, 목	월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김순기	*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목			이미현		통증치료	수, 목					
	전용훈	*	* 신생아, 미숙아, 발달	목, 금	화, 수			영상의학과 (☎2740)	김원홍		HIFU 조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임대현	*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월, 수		조순구		*	* 증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목				
	김정희	*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화	수, 금		전용선		*	* 증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권영세	*	*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월, 화	수, 금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 소화기, 폐, 뇌, 위, 두경부, 혈액, 유방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사이버, 이프센터	
	이지은	*	* 소화기, 소화, 체내, 당뇨, 감염, 내분비, 신장질환	수, 목	화, (목), 금	(목)오후: 비만센터진료		김현정	*	* 유방암, 비뇨기과, 두경부, 부인암	월, 수, 목	(월), 수, 목(수), 금	체중관리 센터			
	박신영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화, 금	월, 화	14:00~16:00		일 반			금	월, 화, 목				
	일 반			수, 목, 수, 금				사이버 방사선 나이프 중앙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김우철	*	* 소화기, 폐, 뇌, 위, 두경부, 혈액, 유방암	화, 금	화, 금			
안과 (☎2400)	오준협	*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금		▲공기습무원내과클리닉	김현정		*	* 유방암, 비뇨기과, 두경부, 부인암	화, 금	화, 금				
	문연성	*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금	수, 목		박현성		*	* 뇌중앙, 뇌혈관기형	화	목				
	진희승	*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월, 금		윤승환		*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금				
	강성모	*	* 안성형, 사시	월, 수	목		핵의학과(☎3160)	현인영	*	*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김내래	*	* 녹내장, 백내장	화, 금	월			임중환		환경생물학, 핵의학물관리, 작업성보호/질환, 고압제	월, 화, 목	화, 목				
	일 반			월, 목, 금	토			박신구		환경생물학, 핵의학물관리, 작업성보호/질환, 고압제	월, 금	월, 금				
안과레이저(☎2400)	EYAL		레이저 클리닉	금	수, 목, 금			김환철		뇌, 신경생물학 및 관련, 영구제형장치, 영구관상생각	월, 수	수				
							김일규	*	* 구강인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화, 목					
							오남식	*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월, 화, 목, 금	월(▲), 화, 금	▲임플란트클리닉				
							윤정호		치주과	월, 화, 목	월, 화, 목					
							장금수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금					
							박찬운		보철과	토						
						손선정		보존과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토						
						임정영		교정과	수, 금	수,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응급의학과(☎2301)	일 반	응급의학, 약물중독	월, 목	월, 목						

최첨단 암 치료기의 새로운 혁명! RapidArc & Cyberknife



RapidArc
Cyberknife

보다 빠르고 정확한 최신기술 방사선 치료장비 래피드아크

래피드아크는 21세기적 치료라고 각광받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IMRT)와 영상유도방사선 치료(IGRT)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여기에 2007년 개발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기술인 종양의 모양에 따른 맞춤형 회전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무혈 | '로봇 사이버나이프'

실시간 종양추적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 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www.inha.com

IGRT센터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방사선종양학과 032)890-3070 신경외과 032)890-2370